

마호노를 본 한 프랑스 혁명가의 감상

심장중의강철

«Махно. Впечатления одного французского публициста» — корреспонденция, переданная В.И.Ленину наркомом по иностранным делам РСФСР Г.В.Чичериным Не позднее 9 мая 1919 г.

항상 거짓된 선전만을 하는 부르주아 대지주들과 우크라이나에 독일인 식민지를 만들려는 메노나이트들은 마호노 동지를 몇달동안 중상모략하고 그들에게 불명예를 안기려고 하고있습니다. 이 중상모략은 마호노우슈치나를 보지못한 저 멀리에 있는 이들에게만 통할 말일 것입니다.

나는 마호노와 그의 동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이 무슨 가치를 가지는지를 알고 있으며 이를 모르는 이들에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호노와 그의 동지들은 무엇일까요? 제가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1919년 2월 12일에 프랑스군에서 탈영하였습니다. 이 탈영은 성공하였고(이 전에 저는 러시아까지 오는데에 걸린 한 달이라는 긴 모험의 시간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1919년 3월 12일에 저는 마호노우슈치나로 구성된 볼셰비키의 전위대와 만났습니다. 만날 때 당시 저는 무장했었고 패배하여 도망가던 백군들 사이에 섞여있었습니다. 마호노우슈치나 부대는 승리에 기쁨에 잠겨 술을 마시고 있었고 저는 그들 옆에 쓰러져있었습니다. 전 그때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바로 앞에 패배한 적군이 있는데 그 어떠한 사람이 혁명 정신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자같이 용맹하게 싸운 후에도 어떠한 끔찍한 일 하나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만치 평온하게 규율을 정비했습니다.

그 이후 그들은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 같은거 말입니다. 저는 프랑스 군에서 탈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호노우슈치나 병사들은 저와 악수를 했고 그 중 하나는 저에게 먹을게 필요하지않냐고 말을 하였고 다른 한 분은 저에게 다른 건 더 필요없냐고 말했습니다. 아! 나는 이들의 열광적인 따듯함에 난 이들과 같이 싸워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Комиссар 9-го Украинского полка Малеренко[1](제9 우크라이나 보병연대와 대화했다는 정도)

내가 그들과 같이 싸우겠다고 하자 몰로찬스크[2]에 갔고 거기서 저는 정치위원에게 저의 대한 소개를 하고 무기와 탄약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과 같은 군인인 것 처럼 대해줬고 열정적인 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친절하여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나는 잠깐의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 신분과 나의 진정성, 그리고 내가 왜 탈영했는지의 대한 간단한 검사였습니다. 그리고서 내 옷이 비참해보였는지 우리와 같이 아예 여기 정착하지 않겠냐고 제안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정착이 아닌 나를 구해줬던 병사들과 같이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 부대와 같이 다니던 삶은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같이 다니며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부대의 승리를 예찬하면 부대원들은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마호노 동지와 함께라면 우린 늘 승리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아니지만 그의 사자같은 용맹함이 없었다면 우린 이미 부르주아와 독재자들에게 진작에 패배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원래라면 후방에서나 군사 작전을 맡던 "지휘관"이란 작자들과 다르게 마흐노는 이미 저 앞 멀리 선두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부대와 함께 기병대를 끌며 그는 최고의 용맹함을 보여줬습니다.

다음날 저는 마흐노 동지와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마흐노 동지와 그의 동지들과 함께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동지들은 저를 환영해줬고 서로 자기 소개를 하고 다녔습니다. 나는 프랑스에서 탈영하고 세바스토폴로온병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옆에 있던 마흐노 동지는 웃으면서 저와 악수했고 저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가 나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기뻐는지, 그는 나를 자기 옆에 앉히길 원했고 우리는 술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나를 저녁 식사에 남겼고 새벽 2시 쯤에 우린 서로 헤어졌습니다.

마흐노는 유연하고 좋은 몸을 가진 평균키의 남성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좋은 몸을 가지고 깔끔한 제복을 입고서

그리고 동시에 귀엽고 개성있어 보이고 또한 통찰력 있는 삶을 가집니다.

무한한 용기와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의 머리를 뒤로 넘기고 이마를 드러내면 더 매력적이며 장엄해보입니다.

우리는 마흐노 동지의 부관인 체르노프 동지의 연락을 통해 다시 만나서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체르노프 동지는 혁명의 베테랑이며 여러 해 동안 혁명적 단결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는 미국과 영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왔고 그 외에도 여러 지역을 돌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며 경험과 지식을 쌓았고 여기서 배운 언어를 토대로 마흐노의 통역사로서 있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마흐노와 체르노프가 프랑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에 놀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에게 파리의 혁명가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 이들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흐노는 프랑스 혁명가들의 사상을 잘 알고있었고 마흐노의 평가는 정확하고 정당했습니다.

다음날 마흐노는 몰로찬스크 마을 사람들과 얘기하고싶다며 거기로 떠났습니다. 몰로찬스크 사람들은 모두 나와 마흐노에게 박수를 쳤으며 모두가 마흐노의 장점을 안다는 듯이 함성을 내걸렸습니다. 마흐노는 뛰어난 기마병입니다. 그는 잠자는 시간보다 말 위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며 마흐노가 마을 회의에 도착했을 때 마흐노는 미소를 짓고서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이 미소는 내가 그대들을 이끄는 지도자적 존재가 아니라 나도 그대들과 같은 하나의 노동자 프롤레타리아일뿐이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주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주는 크나큰 사랑과 억압자들에게 주는 불타는 증오심을 내는 우리와 같은 친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가 연단에 올라와서 연설을 하였는데 종종 박수와 함성소리로 중간 중간 중지되기도 하는 등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연설하였습니다.

다. 믿음과 열정으로 가득찬 눈빛으로 역동적인 몸짓과 함께 무려 1시간 동안 연설하였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저조차도 잘 이해할 정도로 쉬운 연설을 할 수 있는 웅변술을 가졌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나는 그의 표정과 몸짓에 매료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입에서 말하는 소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청중들을 기쁘게 하는 선동적인 단어로서 연설을 끝내고 연단에서 내려왔을 때 환호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 만세!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자! 마호노 만세!>> 사방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때서야 저는 마호노가 얼마나 우크라이나에서 인기가 많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몸을 가진 마치 지도자와 같은, 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자신을 지도자가 아닌 하나의 프롤레타리아이며 혁명가임을 말하는 이 사람에게 병사들과 인민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호노를 봤을 때 느낀 감상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알려진 그의 모습입니다. 그가 위대한 혁명의 전사 중 하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Стефан Роже. Редактор «Ваг» в Париже

РГАСПИ. Ф. 2. Оп. 1. Д. 9693. Л. 1—4. Автограф на французском языке. Перевод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М.М.Пантелеева. ^{1*} Собственный заголовок документа. Публикуемая рукопись корреспонденции редактора парижской газеты «La Vaque» была передана В.И.Ленину нарком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Г.В.Чичериным, которы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олучил ее от сотрудника НК.ИД А.А.Малицкого. На сопроводительной записке от 9 мая 1919 г. Чичерина имеется помета В.И.Ленина: «в архив» (Биографическая хроника. Т. 7. С. 180—181).

번역하며 든 생각은 이게 마호노 찬양문인지 설명문인지 헷갈린다는 것이었다.

[1] Видимо, речь идет о командире 8-го Заднепровского полка В.В.Куриленко.(무슨 대화를 했냐면 제 8연대의 쿠릴렌코 동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 정도)

[2] Молочанськ. 우크라이나에 있는 도시. 우크라이나 남부 Токмацький район에 속함

<http://docs.historyrussia.org/ru/nodes/32264-mahno-vpechatleniya-odnogo-frantsuzskogo-publitsista-korrespondentsiya-peredannaya-v-i-leninu-narkomom-po-inostrannym-dela-rsfsr-g-v-chicherinym-ne-pozdnee-9-maya-1919-g>